

여성 인권 보호 및 포용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여성 인권 및 리더십 강화를 위한 노력 세계경제포럼이 2021년 발표한 ‘젠더(성)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수준은 156개국 중 102위를 기록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창립 이래 여성 인권 신장 및 인식 변화, 생활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교육, 기부, 캠페인 등의 사회책임경영 활동을 통해 여성 인권 증진과 리더십 역량·젠더 관점 강화 또한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7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여성 NGO 리더십육성기금의 경우, 한국여성재단에서 선발된 장학생에게 기업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기업-시민단체-대학의 3자 협업 모델로서 그 가치를 더합니다. 이를 통해 2022년 7월 기준, 총 1,058명의 활동가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이같은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표 4-22] 여성NGO리더십육성기금 지원 현황(2007~2022년)*

* 2022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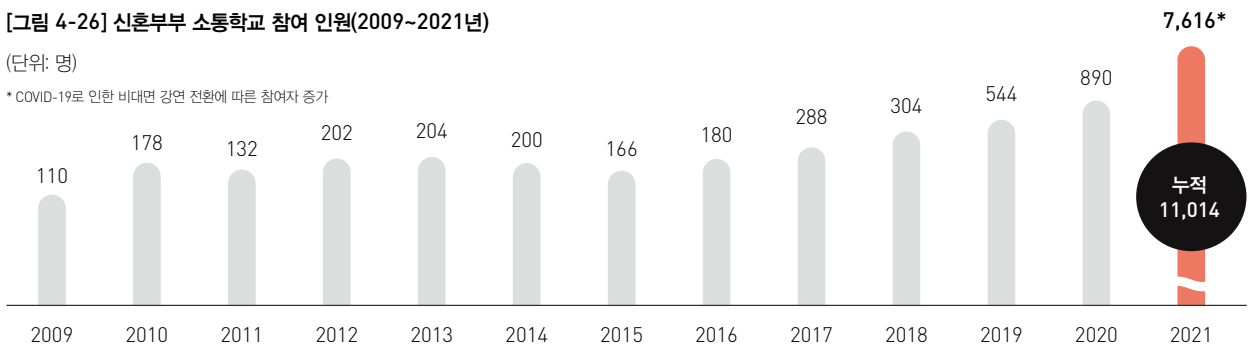
NGO 여성 리더 육성 기금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TOTAL
장기과정 미래여성NGO 리더십 과정 (석사과정)	인원(명)	10	9	11	10	9	11	10	8	12	10	6	10	10	13	11	8	158
	주파트너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학교																
단기과정 NGO리더십 심화 과정 (3개월)	인원(명)	-	51	61	60	60	60	61	60	60	60	30	60	62	70	70	75	900
	주파트너		여성재단, 이화여대	여성재단, 계명대	여성재단, 상지대	여성재단, 이화여대	여성재단, 전북대	여성재단, 전남대	여성재단, 이화여대									
TOTAL	인원(명)	10	60	72	70	69	71	71	68	72	70	36	70	72	83	81	83	1,058

신혼부부 소통학교 유한킴벌리는 2009년부터 서울YWCA와 함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소통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생명사랑 신혼부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환경 아젠다 연계 ‘쓰담챌린지’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실천을 비롯, 메타버스 플랫폼인 계더타운을 활용한 가족 내 평등 의식 제고 전문가 강의, 메타버스 속 숲에서의 라이브 공연, 부부 유형 테스트, 나무심기 등 가상의 신혼부부 숲에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렇듯 팬데믹으로 인한 제한적 상황에서도 유한킴벌리는 신혼부부들과의 온라인 접점을 강화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그림 4-26] 신혼부부 소통학교 참여 인원(2009~2021년)

(단위: 명)

* COVID-19로 인한 비대면 강연 전환에 따른 참여자 증가



성평등 사회 확산을 위한 노력_월경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1971년부터 소비자 교육을 매개로 고객과 소통해온 유한킴벌리는 특히 교육을 통한 여성 청소년들의 보건 역량 강화와 월경권 증진에 힘써 왔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는, 생리하는 중입니다’ 블로그를, 2018년에는 온라인 정보 공유 및 교육 플랫폼 ‘우리 월경해!’를 개설하여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우리 월경해!’에서는 보건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경, 월경, 위생 교육자료, 산부인과 전문의와 제작

한 초경 위생 관리 영상 교육자료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부터는 장애를 가진 여성 청소년들의 초경 교육에 필요한 영상 자료와 생리 팬티를 제작해 총 108개 특수학교에 배부하였으며, 이 지원사업은 향후 10년간 매년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성평등 사회 확산을 위한 기부 유한킴벌리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을 통해 소외 청소년들에게 6년 연속으로 좋은느낌 100만 패드 이상 기부를 실천하며, 2021년까지 총 750만 패드의 생리대를 기부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될 '힘내라 딸들아' 캠페인은 여성, 특히 청소년들이 평등하게 월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이며, 총 742,371명의 청소년들에게 좋은느낌 생리대를 전달했습니다. 캠페인에 기부로 참여한 소비자의 수는 20,394명입니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교체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여성을 돕기 위한 좋은느낌 처음생리팬티를 개발해 2020년,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보건교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특수학교의 지적장애 학생 대상 교육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10년간 매년 약 100개 학교에 처음생리팬티를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진 4-24] 유한킴벌리 '힘내라 딸들아' 생리대 기부 캠페인



[표 4-23] 생리대 기부 현황(2016~2021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누적
기부량(패드)	1,532,304	1,008,352	1,455,120	1,086,832	1,086,864	1,336,936	7,506,408
수혜인원(명)	699,786	13,888	10,393	4,925	7,159	6,220	742,371